

## 전두환 기소 943일째...오늘 광주서 '역사적 판결 기대'

전씨 불출석·관할 이전 탓 지연·재판장 잦은 교체  
2년 5개월간 18차례 재판 중 전씨 출석은 '2번 뿐'  
'헬기사격' 날선 공방...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선고만 앞두고 있다.

불출석 허가 공방부터 잦은 재판장 교체까지 여여곡절이 많았던 전씨 형사재판의 경과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201호 형사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고소 1314일째, 기소 943일째 형량이 정해진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결심 공판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진

행됐지만, 전씨는 단 2차례만 출석했다.

첫 재판은 2018년 8월 27일 처음 열렸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부여됐지만 전씨는 불출석했다. 이후 전씨 측은 재판을 서울에서 받을 수 있게 해당라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할 이전 없이 두 번째 재판이 지난해 1월 7일 광주에서 열렸지만, 전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씨가 2차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강제 절차인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그 사이 범인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김희석 판사에서 장동혁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기소 10개월 만인 지난해 3월 11일 전씨가 처음 광주 법정에 섰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부인 이순자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했다.

전씨는 출석 직전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왜 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이후 재판부는 전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불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재판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 안전 울타리가 설치되고 있다.

출석 허가 신청서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의 증인 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전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골프장 나들이에 이어 12·12 오찬까지 후안무치한 전씨의 행보에 전국민적 비난도 일었다.

올해 1월에는 장 부장판사가 21대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임했고, 새 재판부는 공판 절차 경신에 따른 인정 신문을 이유로 앞선 재판부

가 결정한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다.

전씨는 5·18 40주년을 보름여 앞둔 올해 4월27일 광주 법정에 2번째로 출석했다. 전씨는 일관되게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에선 헬기 사격 여부를 놓고 검찰과 전씨 측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재판에 출석한 증인만 원고 측 28명, 피고 측 8명 등 총 36명이다.

법 조문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단독사건이지만, 이 재판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다른 어떤 재판과도 비교할 수 없다.

선고를 앞두고 전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5·18단체는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때 진정한 국민 대화합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재판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봉우기자



나주 읍성권 건축자산진흥구역.

## 나주 읍성권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관광 활성화 기대

금성관·나주향교 등 과원동 일원  
9만8459㎡에 총사업비 772억 원  
한옥 235동 신축...오늘 지정·고시

전남도는 나주시 금성관, 나주향교, 나주읍성 서성문 등이 밀집된 과원동 일원을 나주 읍성권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 밀집 지역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로 훼손과 멸실을 줄이고 경관적인 특색을 보전하

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번에 지정한 진흥구역은 나주읍성 일대인 과원동, 서내동, 산정동, 금계동 등으로 면적은 9만8459㎡다.

전남도는 진흥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전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30일 지정·고시한다.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772억원을 투자해 전통한옥 235동(주택 162동, 상가 73동)을 신축하고, 담장과 건축물 외벽 경관을 개선해 역사·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2016년 나주시에 전통한옥 견본주택 및 증충 한옥 상가 건축비 5억원과 담장 등 경관개선 사업비 1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공공기반시설비 1억 5000만원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옥 주택·상가 신축 시 전남도는 보조금 1500만 원과 융자금 1억원을, 나주시도 8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 규정이 완화 적용된다.

나주 읍성권역은 도로폭이 좁아 돌담을 허물지 않고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했으나 완화된 법규정이 적용되면 돌담을 보존하며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특히 다양한 건축자산 특화방안을 통해 나주 금성관을 비롯 목사내아, 향교 등 문화재와 연계해 문화관광과 전통체험, 정주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 읍성권은 한옥주거와 숙박체험, 한옥점포 등이 어우러진 국내 대표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식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나주 읍성권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은 전남에서 사라져가는 전통마을을 문화유산 보존과 함께 전통 관광 자원화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